

김영석의 『이춘풍전』 연구

장 두 식*

요약

본고는 고전소설 『이춘풍전』을 해방직후 현대소설로 개작한 김영석의 『이춘풍전』의 문학사적인 의미망을 고찰하였다. 이 텍스트는 문학사에서 크게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김영석 문학 연구에서도 논의되지 않고 있다.

그런데 개작소설 『이춘풍전』은 해방직후라는 시대상과 월북 이전 김영석의 문학 활동과 밀접하게 관련을 맺고 있는 텍스트다. 즉 텍스트의 개작 동기와 목적이 해방직후 문학운동과 관련이 깊다. 또한 이 텍스트는 주동인물인 '이춘풍'이 근대적인 성격으로 형상화되었고 텍스트 주제가 양기적으로 형상화되는 등 원작 소설의 단순한 개작이 아니라 작가의 새로운 창작물로 읽을 수가 있다.

개작소설 『이춘풍전』은 해방직후라는 사회적 상황과 조선 문학가동맹에서 활동한 작가의 의도가 반영된 소설이면서, 주동인물을 입체적으로 재창조하고 부정적인 인물들을 창조함으로써 고전소설의 도식적인 구조에서 벗어난 소설이다. 원본 텍스트가 판소리계통의 소설로서 풍자와 해학으로 주제의식을 드러냈다면 이 텍스트는 주동인물 이춘풍의 각성 과정을 통해 주제의식을 드러내고 있다. 따라서 이 텍스트는 문학 대중화를 위한 목적과 함께 소설적 형상화에도 어느 정도 성공한 소설이라고 볼 수 있다.

주제어: 개작, 이춘풍전, 김영석, 고전소설, 해방직후, 대중문학운동

* 단국대학교 자유교양대학 조교수

목차

1. 서언
2. 작가 김영석
3. 텍스트 출간 배경
4. 대중문학운동과 『이춘풍전』
5. 춘풍의 변모와 작가의 목소리
6. 결어

1. 서언

고전소설 『이춘풍전』¹⁾은 중세해체기인 19세기 중엽 이후 생산된 세대 풍자소설적인 내용을 보이는 판소리계 소설 텍스트다.²⁾ 그런데 이 텍스트는 고전소설의 보편적인 유형에서 벗어나 있다. 내용상으로 가정소설과 유사하나 계모형, 쟁총형, 축출형에서 벗어나 있고, 전기소설의 요소도 가지고 있으나 기상천외한 전기담이 아니라 인간으로서 가능한 현실세계를 그리고 있다. 그리고 서사전개에서 공안류 소설 유형도 가지고 있다. 이렇듯 이 텍스트는 앞선 시기 소설들의 특수성을 종합한 것으로 보여 지는데 이는 고전소설의 말기 소설이기 때문이다.³⁾ 내용상으로는 전대의 소설의 다양한 유형이 중첩되거나 다소 변화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형식적으로는 4.4조를 기조로 하는 고전소설의 역어체와 구송체와 광대들의 대화체가 혼합된 판소리계 소설의 형식을 가지고 있다.⁴⁾ 또한 영웅소

1) 『이춘풍전』은 조선 후기 소설로 볼 수 있는데 정식으로 출간되지 않았고 다양한 이본으로 전해진다. 가람본, 국립도서관본, 나손본(1-7본), 박순호본(1-2본), 성산본, 연세대본, 조상우본(「십팔자화입풍」), 『한성순보』 연재본 등의 14본이 확인된다. 조상우, 『고전산문의 발견과 활용』, 보고서, 2007

2) 구인환, 「이춘풍전」, 『배비장전』, 신원문화사, 2003, 116면.

3) 장덕순, 「이춘풍전 연구」, 『국어국문학』 5집, 국어국문학회, 1953, 67면.

4) 위의 책, 같은 면.

설, 가문소설, 애정소설, 송사 소설 등 다른 고전소설들이 세계와의 비장한 갈등을 그리고 있는데 비하여 이 소설 텍스트는 세계를 세계 자체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골계적으로 변용하여 그리고 있다.⁵⁾ 그리고 통속적인 요소가 강한 세태소설이면서도 가부장주의와 물신주의를 비판하고 춘풍의 처를 주동인물로 만들어 뒤뜰린 가부장에 대한 정치와 교정을 형상화하고 있는 것처럼 비판적인 성격이 강하다.⁶⁾

이렇게 후기 고전소설적인 특성을 보이는 『이춘풍전』을 해방직후인 1947년 김영석이 현대소설로 개작하였다. 개작소설 『이춘풍전』은 문학사에서 크게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는 텍스트이며 아직까지 김영석 문학 연구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되지 않고 있는 텍스트다.

그런데 개작소설 『이춘풍전』은 해방직후라는 시대상과 김영석의 월북 이전 문학 활동과 밀접하게 관련을 맺고 있는 텍스트다. 즉 텍스트의 개작 동기와 목적이 해방직후 문학운동과 관련이 깊다. 또한 이 텍스트는 주동인물인 ‘이춘풍’이 근대적인 성격으로 형상화되었고 텍스트 주제가 양가적으로 형상화되는 등 원작 소설의 단순한 개작이 아니라 작가의 창작물로 읽을 수가 있다. 고전소설을 다시 쓰는 것은 원본(모본)과의 관계에 따라 원본에 충실한 것은 이본이고, 작가의 독자성이나 정체성에 의해 재구성되는 것을 개작본이고, 매체나 양식에 따라 변모되어 원본과 직접적인 비교가 어려운 텍스트를 변용물로 분류할 수 있다.⁷⁾ 여기에서 개작본과 변용물은 새로운 창작물이라고 할 수 있다.

『이춘풍전』은 해방직후 문학가동맹의 문학 대중화 운동에 의해서 개작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개작이 일면적으로 진행된 것이 아

5) 최혜진, 「〈이춘풍전〉에 나타난 부부 갈등의 해결 방식과 문학치료적 효용」, 『한국언어문학』 제63집, 한국언어문학회, 2007, 258면.

6) 권오숙, 「〈베니스 상인〉과 〈이춘풍전〉의 비교문학적 연구」, 『Shakespeare Review』 vol.50 No.1, 한국셰익스피어학회, 2014, 7면.

7) 서보영, 「고전소설 다시쓰기의 전통과 국어교육적 의미-〈춘향전〉을 중심으로」, 『국어교육』 제44집, 2019, 125-126면.

나라 복합적으로 재구성되었다. 텍스트 외적으로는 해방직후 상황과 직접 연결되어 있고, 텍스트 내적으로는 주동 인물의 성격이 입체화되고 갈등구조가 새롭게 재창조되면서 작가의 주제의식이 자연스럽게 형상화되고 있다.

본고는 아직까지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지 않은 김영석의 개작소설 『이춘풍전』의 생산 배경과 작품 내적의 구조를 살펴봄으로써 이 텍스트의 문학사적인 의미를 제고하는데 목적이 있다. 해방기라는 격동의 시기에 조선 문학가동맹에서 대중문학운동을 주도하였던 김영석의 작품이기 때문에 개작 또한 의미 있는 작업이 될 수밖에 없다. 텍스트 외적인 측면과 텍스트 내적인 측면을 고찰하여 개작소설 『이춘풍전』의 의미망을 조망하고자 한다.

2. 작가 김영석

김영석은 1937년 평론 「조선시의 편영」을 『동아일보』에 발표하고 1938년 『동아일보』 주최 신인문학 콩클에서 단편소설 「비둘기의 유혹」이 당선되었고 『인문평론』 1940년 10월호에 「월급날 일어난 일」이 유진오의 추천으로 게재됨으로써 본격적으로 문단활동을 시작하였다. 그는 1913년 생으로 동성상업학교를 졸업한 후 보성전문 상과를 다니다 경제적 문제로 중퇴하고 취업을 하였다는 사실이 알려졌다.⁸⁾ 전기적 사실을 통해서 보면 그의 공식적인 창작 활동은 다소 늦은 감이 있는데 사회생활을 통해

8) 김영석의 전기적인 사실에 대해서는 많이 알려지지 않았는데, 윤희영은 김영석이 1913년 10월 7일생이고 5남 1녀 중 장남이었으며 동성상업학교를 졸업한 후 보성전문 상과에 입학하였으나 가정형편으로 중퇴하고 회사에 취업했다고 논의하고 있다. (『김영석 문학연구』, 인하대 석사논문, 1998) 윤희영 논의를 김정화는 긍정적으로 수용하고 있다. (『북한에서 발표된 김영석 소설 고찰-보배손』을 중심으로, 『국제어문』 제57집, 2013, 309면. 주3) 참조.

현실에 대한 비판적인 인식이 형성되었을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⁹⁾

김영석의 풍자적인 작품 성향은 당대에도 통설화 되어 있었다.¹⁰⁾ 등단부터 해방 전까지로 단편소설 「비둘기의 유혹」, 「춘엽부인」, 「월급날 일어난 일들」, 「형제」, 「신혼」, 「상인」, 「좁」이 있다. 대부분이 풍자적인 수법의 소설들이었다.

이러한 풍자적인 소설들은 1930년대 발표되었던 채만식의 풍자소설 창작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1930년대 유럽에서는 이탈리아의 무솔리니와 독일의 히틀러가 권력을 장악하면서 파시즘의 폐해가 나타나기 시작했고 일제는 군국주의의 길로 들어서면서 강압적인 통치체제를 강화하였다. 식민지 한국에서의 억압적인 통치는 더욱 강화되었고 문단 내에서 카프 해산과 같이 검열과 탄압이 공공연하게 자행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공법’이 아닌 ‘측공법’으로 현실을 비판하는 풍자소설이 대안으로 주목되었다.¹¹⁾ 풍자소설이 소극적인 대응이라는 비판도 있었지만 억압적인 당대 현실 속에서 풍자소설들이 많이 발표되었다. 김영석의 풍자적 소설들 또한 이러한 상황에 상응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김영석이 해방직후 노동소설 「형제」, 「전차운전수」, 「지하로 뚫린 길」, 「폭풍」 등을 연달아 발표한 것을 보면 일제치하에 발표한 풍자소설들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다.

해방직후 김영석은 조선 문학가동맹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문학대중

9) 유진오는 추천사에서 김영석이 재능이 뛰어나고 정확하게 인생을 눈을 가지고 있지만 그가 “저나리즘을 소격하고”, “본루타(혼론) 또는 결정타가 없었”기 때문에 아직까지 불우한 작가로 소개하고 있다.(유진오, “추천사”, 영인본 『인문평론』12, 1940.10, 143면.) 그가 기존 문단과 언론과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있었고 창작활동도 지속적이지 않았음을 지적하고 있는 글이다. 이러한 불우함은 그가 처한 사회적 환경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10) 유진오는 단편소설 「월급날 일어난 일들」이 “고-고리를 연상케 하는 눈물겨운 유모어와 풍자의 호단편”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이러한 평가처럼 김영석의 작품들 중에 풍자적인 소설들이 많았다.(유진오, “추천사”, 위의 책, 같은 면.), 이경재, 「김영석 소설연구-생산문제를 중심으로」, 『현대소설연구』(45), 한국현대소설학회, 2010, 301면. 재인.

11) 이화진, 「채만식 풍자소설의 성격 재론」, 『국제어문』 30집, 2004, 251면.

화에 관한 평론들을 발표한다. 조선 문학가동맹은 박헌영의 지도하에 있었던 조선공산당(남로당)의 정치적인 노선과 강령을 따르면서 문학 활동으로는 민족문학 건설을 목표로 삼았고 그 방법으로 문학 대중화를 취했다.¹²⁾ 1945년 8월 20일 재건과 조선공산당이 제시한 <현정세의 우리의 임무(8월 테제)>는 당시 한국을 부르주아 민주주의 혁명 단계로 인식하고 프롤레타리아 혁명으로는 가기 위한 진보적 민주주의 국가건설을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¹³⁾ 그리고 문화전선의 당면과업을 인민적 민주주의적 진보적 민족문화의 수립이라고 천명하였다.¹⁴⁾ 이러한 조선공산당의 노선을 수용한 조선 문학가동맹 측은 인민을 기반으로 하는 민족문학 건설을 목표로 삼았다.¹⁵⁾ 여기서 인민은 가치중립적이었던 기존의 코드를 탈코드화하여 피지배자이자 변혁의 주체라고 변용한 것이다.¹⁶⁾ 이는 8월 테제가 가지고 있는 인민전선적인 성격을 반영한 것이며 노동자를 중심으로 중도층을 아우르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불러낸 담론이었다.

분명히 정세는 복잡화되고 분명한 판단을 필요로 하나 현하의 정치적 과제가 다음의 점에 있음은 사실이다.

우선 일본 제국주의의 잔존한 세력을 일소할 것, 민족의 완전한 해방과 국가의 자주독립을 축성해야 할 것, 또한 이 모든 것을 진정한 민주주의적 원칙에 의하여 수행하지 않으면 안될 것 등등이다. …(중략)… 우리

12) 유덕재, 「해방직후 문학론에서의 대중화 문제」, 『Culture and Convergence 문화와 언어』 14집, 한국문화융합학회, 1993, 8면.

13) 김인식, 「(8월 테제)의 진보적 민주주의의 국가건설론」, 『민족운동사연구』 55, 2008, 366면., 여상임, 「해방기 좌익 측 문학의 연표적 행위와 인민의 형성」, 『한민족어문학』 제90집, 2020, 406-407면.

14) 조선공산당 중앙위원회(1946.4), 「조선민족문화건설의 노선(잠정안)」, 『신문학』 창간호.

15) 임화, 「현하의 정세와 문화운동의 당면임무」, 『문화전선』 창간호, 1945.11, 임화, 「조선 민족문학건설의 기본과제에 대한 일반보고」, 『건설기 조선문학』, 백양당, 1946. 청량산인(이원조), 「민족문학론-인민민주의 민족건설을 위하여」, 『문학』 7호, 1948.4

16) 여상임, 앞의 책, 412면.

의 앞에는 부르조아민주주의 혁명의 근본과제가 그대로 남아 있음을 의미한다. …〈중략〉… 조선의 부르조아 혁명을 극히 소수의 진보적 부르조아지와 기타는 주로 중간층, 농민, 노동자 계급의 손으로 수행하지 않으면 아니할 수 없는 사태에 이르게 하였다.¹⁷⁾

임화의 위와 같은 주장에서 볼 수 있듯이 조선 문학가동맹은 8월 테제를 고스란히 수용한다. 조선 문학가동맹은 인민성에 기반 하여 일제·봉건 잔재 청산, 국수주의 배격, 진보적 민족문학 건설, 국제문학과와의 제휴를 강령을 내세우면서 문학 대중화 운동을 확산하였다. 문학 대중화 운동은 초기부터 문맹퇴치, 철자법 통일안 연구 등이 제안 되는 등 대중 계몽 운동과 병행하여 전개되었다.¹⁸⁾ 1946년 9월 총파업과 10월 인민항쟁을 계기로 대중 계몽보다는 대중운동으로서의 문화투쟁으로 전환되었다. 조선 문학가동맹 제 8회 중앙집행위원회에서는 「문학운동의 대중화와 창조적 활동의 전개에 관한 결정서」를 통하여 문호개방의 원칙하에 지부건설, 씨클망 확충, 문예공작자 육성들을 제시하고 임원진을 대대적으로 개편하고 문학대중화운동위원회를 신설하였다.¹⁹⁾

김영석은 조선 문학가동맹 산하 문학대중화운동위원회 초대 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김남천과 함께 해방기 문학 대중화론을 이끌었다. 그는 문학대중화를 위해 「문예의 대중화 문제·기타」(『신세대』, 1946.7), 「문화 씨클의 성격-문학대중화를 위하여」(『현대일보』, 1946.8.27.-28), 「문단 1년간의 업적」(『중외신문』 1946.10), 「문학자의 새로운 임무-문화공작자로서의 문학자」(『백제』 1947.2), 「대중문학에 관한 문제들」(『문화』, 1947.12), 「문학옹호를 위한 투쟁-구국문학의 이론과 실제」(『조선중앙일보』, 1948.6.20.~22)과

17) 임화, 「현하의 정세와 문화운동의 당면임무」(『문화전선』 창간호, 1945.11), 송기환 외, 『해방공간의 비평문학 1』, 태학사, 1991, 25면.

18) 조선문학가동맹 서기국 편, 『건설기의 조선문학』, 백양당, 1946, 192면.

19) 박민규, 「조선문학가동맹 '시부(詩部)'의 시 대중화 운동과 시론」, 『한국시학연구』 제33호, 2012, 199-200면.

같은 평론을 연속적으로 발표하였다.

8·15를 계기로 하여 문학의 가장 중대한 혁명적 과업의 하나는 문학을 종래의 소시민적 울안에서 끌어내어 광범한 근로대중 층에 삼투시키는 것이었다. 누구 한 사람 이 문제에 이의를 갖지 않았겠고 기회 있을 때마다 여러 사람에 의하여 주장되어 온 바다.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 어떻게 해서 노동자, 농민에게 높은 의식을 넣어 줄 수 있는 가장 재미스런, 가장 평이한 그러면서도 통속적인 데 떨어지지 않는 문학작품을 만들어 그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가는 의연 숙제로 남아 있다.²⁰⁾

위와 같은 김영석이 평론을 보면 조선 문학가동맹의 문학대중화 목적이 노동자, 농민의 계몽에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는 해방직후 발표된 문학작품들이 대부분 생경하고 근로 대중들의 요망과 동떨어진 것들이 많음을 지적하면서 알기 쉽게 재미있게 근로대중에 맞게 써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²¹⁾ 그리고 문학대중화 운동을 위한 전위그룹으로 문화 씨클을 제시하고 있다.

문화, 내지 문학 씨-클운동은 대중의 문화, 문학적 욕구를 충족시키고 대중의 문화, 문학적 수준을 향상시키는 대중 자신의 조직체인 점에서 자주적 창조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요, 그것은 문화 전반이나 혹은 문화의 일부분의 감상과 연구된 그 활동을 위하여 동호자들로써 조직된 소집단으로써, 그 목적은 대중의 계몽과 변화와 대중과의 조직적 연락에 있는 것이다²²⁾.

20) 김영석, 「문예의 대중화 문제·기타」, 송기환 외, 『해방공간의 비평문학·2』, 태학사, 1991, 62면.

21) 위의 책, 63면.

22) 김영석, 「문화 씨-클의 성격」, 송기환 외, 『해방공간의 비평문학·2』, 위의 책, 139-140면.

문학대중화 운동을 위해서는 문학 전문가 그룹이 아니라 문학을 아우르는 문화 씨클을 통하여 실천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문학 대중화는 개인 창작에서 벗어나 그룹과 조직을 통한 활동에서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1946년 9월 총파업과 대구 10.1 항쟁을 거치면서 조선 문학가 동맹의 문학대중화 운동은 구국문학론으로 전환되었고 문화공작자 육성이 새로운 임무로 설정되었다.²³⁾

우리는 자기만족적 또는 언어 유희적 문학을 집어치우고 인민대중을 교화 교육시킬 수 있는 호흡이 큰 문학작품을 생산하는 한 편, 인민 대중 속에서 다수한 문학자를 걸러내서 그 다수한 문학자로 하여금 다시 전 인민대중을 문학애호자로 만들기 위한 문화공작자로 육성시켜야만 한다. 그러므로 조선의 전 문학자는 이제 급속히 문화공작자로서 총궐기해야 할 마당에 이르렀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임무다.²⁴⁾

김영석은 문화공작자는 인민대중 속에서 육성된 문학자들인데 이들이 총 궐기하여 전 조선의 인민 대중을 문학애호자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듯 해방기 김영석은 당대 독자들을 교육, 교화시키는 문학 대중화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다. 『이춘풍전』 개작은 이러한 문학대중화 운동 속에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의식수준이 높은 서울의 한 공장의 남녀 직공들 중에서 고리끼를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고, 이기영을 아는 사람은 한 두 사람뿐이었다고 한탄한²⁵⁾ 그가 당대 대중들에게 친숙한 판소리계 소설 『이춘풍전』에 관심을 가진 것은 당연하다고 할 수

23) 김남천의 「신단계에 처한 문화운동」(『자유신문』, 1947.1.4.-16), 김영석의 「문학자의 새로운 임무-문화공작자로서의 문학자」(『백제2권 2호, 1947.2),

24) 김영석, 「문학자의 새로운 임무」, 송기한 외, 『해방공간의 비평문학·2』, 앞의 책. 228면.

25) 김영석, 「문예의 대중화 문제·기타」, 위의 책. 63면.

있다. 특히 풍자소설을 많이 창작했던 그에게 해학과 세태풍자적인 성격을 기반으로 비판적인 요소가 강한 『이춘풍전』의 개작은 대중문학운동 뿐만 아니라 작가적인 흥미도 담겨 있다고 볼 수 있다.

3. 텍스트 출간 배경

개작소설 『이춘풍전』은 조선금융조합연합회에서 시리즈로 발간했던 협동문고 42권으로 출간되었다.²⁶⁾ 기존 출판사가 아닌 조선금융조합연합회가 협동문고를 출간했다는 점이 특이한데, 이는 이 단체의 해방직후 사정과 관련이 깊다.

조선금융조합 연합회는 전국의 금융 단체들의 연합체로 1933년 발족되었는데 조선총독부의 지원을 받으며 식민지 조선의 최대 금융단체로 성장하였다. 해방 직전까지 전국적으로 단위조합 912개와 하부조직인 식산계 3만 4,345개를 가지고 있었다.²⁷⁾ 조선총독부는 이러한 방대한 조직을 활용하여 금융정책을 효율적으로 펼칠 수 있었다. 조선금융조합 연합회는 실질적으로 관제 조합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

해방이 되자 조선금융조합 연합회는 당연히 친일 단체라는 비판을 받았고 해체나 개편하라는 압력을 받았다. 해방이 되자 사회전반에서 친일 잔재 청산 및 새로운 국가 건설을 위하여 다양한 모색이 시작되었는데 1945년 10월 조선학술원은 「경제문제에 대한 연구보고서」를 통하여 금융기관의 국영 또는 국영관리를 제안하였다. 이러한 제안은 조선금융조합

26) 책의 크기는 30×190mm이고 겉표지, 속지, 속표지와 본문 109면 그리고 후기 2면, 판권면 1면, 협동문고 광고 1면으로 구성되었다. 소설의 사건 전개에 따라 상(1-36면), 중(37-69면), 하(70-109면)로 구분되어 있다.

27)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548681&cid=46623&categoryId=46623>, 한국민족대백과(2021년 9월 14일 검색)

연합회를 존재의 기로에 서게 만드는 것이었다. 그리고 좌익계열인 조선노동조합전국평의회(전평)와 농민조합전국총연맹(전농)과 인민위원회 등의 움직임은 조선금융조합 연합회를 직접적으로 압박했다. 1945년 12월 3일 서울시 인민위원회 제1회 시민생활대책위원회에서는 농민을 위한 민주주의적인 협동조합을 조직하기로 결정하고 협동조합 서울시연합회 기성위원회를 조직하였고, 4일에는 서울시인민위원회와 전평과 전농은 협동조합전국연합회 발기회를 결성하였다. 8일부터 10일까지 개최된 전농 결성대회에서 협동조합 축성의 건을 중앙 기성위원회에 일임한다고 결정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겪으면서 1946년 3월 15일과 16일에 전국협동조합중앙연맹 결성대회가 개최되었다. 그런데 이러한 협동조합 조직운동은 금융조합을 배제한 채 추진되었다.²⁸⁾ 이러한 좌익계열의 협동조합 재편 운동은 조선금융조합 연합회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외부적인 비판과 압박에서 조선 금융조합 연합회는 생존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하였다.

먼저 미군정과 적극적으로 접촉하여 금융조합의 감독에 대한 사무를 도지사에서 이관 받을 수 있었다. 그리고 내부적으로 좌익계열이 추진하고 있는 협동조합을 받아들여 금융조합을 협동조합으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을 취하였다.²⁹⁾ 그리하여 미군정의 지원과 좌익 계열과의 접촉을 통하여 위기상황을 어느 정도 타개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일반 여론을 호의적으로 만들기 위한 활동도 다양하게 시도하였다. 해방 후 첫 번째로 맞이하는 1946년 3·1운동 기념일 행사를 전 직원을 동원하여 성대하게 개최하였고, 3월 20일에는 「독립선언서」 1,000부를 제작하여 시민들에게 배포하였다. 또한 전직원이 참여하는 8·15 기념 행사를 개최하였다. 한글과 국사 강습회를 개최하고, 김성철의 『조선역사

28) 최재성, 「해방~ 625전쟁 직전 시기 금융조합의 조직 재건과 그 중심인물」, 『한국근현대사연구』 43, 한국근현대사학회, 2007, 166-170면.

29) 위의 책, 174-175면.

』 초판 5만 부를 발간하고 유열의 『알기 쉬운 한글강좌』 8,000부를 발행하였다. 농민계몽과 위안을 위한 순회 영사회도 개최하였다. 이러한 생존 노력 속에 협동문고가 발간된 것이다.³⁰⁾

협동문고는 농민의 계몽, 학문과 예술의 보편화를 표방하였다. 총 4개 분야로 기획되었는데 제1부는 학술, 제2부는 농민계몽, 제3부는 고전, 제4부는 민중예술이었다. 강정택의 『농촌 문제 입문』, 안회남의 『춘향전』, 박태원의 『홍길동전』, 이명선의 『홍경래전』, 김남천의 『토끼전』, 채만식의 『허생전』 그리고 이석구가 박지원의 한문 단편소설 6편을 번역한 『양반전』 등이 계속 발간되었다. 김영석의 개작소설 『이춘풍전』도 협동문고 4-2로 발간되었다. 협동문고는 당대 일반 독자들의 기대지평선에 맞는 고전소설을 현대소설로 개작하거나 번역한 책들이 많다. 필자들이 대부분이 좌익계열 작가들이었던 것처럼 조선 문학가동맹의 문학 대중화를 겨냥한 고전 패로디라고 볼 수 있다.³¹⁾

이렇듯 협동문고는 조선금융조합 연합회가 친일 과거를 희석시키고 민심을 얻고자 하는 목적과 함께 좌익계열 작가들의 문학대중화 운동이 함께 담겨있다.

그리고 『이춘풍전』 개작에는 조선 문학가동맹의 해방 직후 전통문화 계승 노선과 관련이 깊다. 재건파 조선공산당에 참여하고 있었던 경성제국대학 강사 김태준은 문화유산 계승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였다.

우리는 방대한 문화유산을 가졌으며 이것을 인민에게 널리 보급·선전시키지 않고는 한 개 특수층의 향미오락의 도구가 될지언정 일반인민의 문학식량이 일부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할 것이다. 고전의 학습, 연구, 보급을 가두에, 근로 층에, 공장에, 농촌에 널리 진출시키지 않으면 안 될

30) 위의 책, 176-177면.

31) 신형기, 「해방직후 문학 논의의 쟁점」, 『해방 전후사의 인식·6』, 한길사, 1989, 282면.

것이다.³²⁾

우리는 이제 온갖 과거의 문학유산을 재검토하여 계승하여야 할 엄중한 시기에 당면하고 있다. 중국 최근의 작가들이 「삼국지」, 「수호지」, 「열국지」, 「악무목전」, 같은 고전소설 속에서 현재의 정치사상에 비추어 가장 계몽하기 적절하다고 보는 항목을 떼서 「삼타주가장」, 「진회」, 「장 의」, 「조원」 같은 각본을 써서 ‘구형식의 신내용이라’는 새로운 시험을 하는 것도 한 개의 묘안이다.³³⁾

과거 봉건시대의 문화유산을 인민을 위한 ‘문학식량’으로 확산시켜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구형식의 신내용’이라는 새로운 계승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고전 문학 작품을 해방 이후의 사회사정에 맞게 활용하거나 개작의 필요성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이원조 또한 과거 봉건사회의 문화유산이 민주주의 혁명과 대립물이라고 하더라도 새로운 민족문화를 건설하는데 필요한 부분을 전부 섭취하고 살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³⁴⁾

조선 공산당원이자 국문학자였던 김태준의 논의와 조선 문학가동맹의 주요 이론가였던 이원조의 주장은 김영석이 『이춘풍전』을 개작하는 데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끼쳤을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 채만식의 「허생전」, 안희남의 「춘향전」, 박태원의 「홍길동전」, 김남천의 「토끼전」의 개작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그런데 협동문고 4-1로 출간한 채만식의 「허생전」은 이광수의 장편소설 『허생전』을 참고하여 박지원의 「허생전」을 개작하였는데 이념적인 측면보다는 해방 후의 사회적 혼란과 무질서, 비리가 횡행하는 현실에 대한 비판적인 측면이 강하다고 할 수 있

32) 김태준, 「문학유산의 정당한 계승방법」, 송기환 외, 『해방공간의 비평문학·1』, 앞의 책, 353면.

33) 위의 책, 355면.

34) 이원조, 「민족문화 건설과 유산계승에 관하여」, 송기환 외, 『해방공간의 비평문학·2』, 앞의 책, 49면.

다.³⁵⁾ 이렇듯 협동문고로 출간된 고전 개작 텍스트들은 작가들의 세계관이 적극적으로 개입 되었다고 볼 수 있다.

4. 대중문학 운동과 『이춘풍전』

현대 소설에서의 개작은 또 하나의 창작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 문학사에서 개작은 주로 고전소설이나 자신의 창작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 즉 개작은 원본 텍스트를 대상으로 작가의 가치관이나 수사학에 의해서 새로운 텍스트로 재생산되는 것을 말한다.³⁶⁾ 고전의 개작은 원본을 상정하지 않고 여러 이본들을 참고하거나 자신이 알고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작가로서의 개성을 드러내는 재창작이라고 할 수 있다.³⁷⁾

원본 『이춘풍전』은 풍자를 통한 가부장제에 대한 비판과 해학을 통한 갈등 해소로 구성되어 있다면 개작 『이춘풍전』은 주동인물인 춘풍의 행로를 통한 현실 비판과 갈등 심화로 구성되어 있다.

이춘풍의 원 이야기는 아즉 이야기를 지은 사람도 알 수 없고, 지은 때도 자세히는 알 수 없다. 또 책으로 된 것도 극히 드물어서, 요지음 겨우 한 권의 사본(寫本)을 얻어, 그것을 미천으로 나는 이 이야기를 꾸며냈다.

말하자면 활자(活字)로 된 이춘풍전은 이것이 처음일게다. 그러나 나는 이야기를 꾸밀 때 사본에 충실하여, 이야기 줄거리와 이야기 속에 일어나는 일들은 되도록 원 이야기 그대로 살려가기에 애썼다.³⁸⁾

35) 민현기, 「연암·춘원·채만식의 〈허생전〉 대비 연구」, 『관악어문연구』, 8권, 1983, 193면.

36) 강진호, 「개작과 작가의 정체성-해방 후 이태준과 김동리 소설의 개작」, 『인문과학연구』 제 42집, 성신여자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20, 320면.

37) 서보영, 앞의 책, 133-134면.

38) 김영석, 『이춘풍전』, 앞의 책, 110면.

「후기」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원본 『이춘풍전』은 판소리계 소설이면서 다양한 이본으로만 존재하던 텍스트였다. 작가 또한 이본 중의 하나를 바탕으로 개작을 하였는데 이 개작 텍스트가 작가가 주장하고 있듯이 최초로 활자화된 『이춘풍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개작 텍스트는 원본 텍스트와는 다른 재창작물이라고 할 수 있다. 작가가 “사본에 충실하여, 이야기 줄거리와 이야기 속에 일어나는 일들은 원 이야기 그대로 살려가기에 애썼다”라고 밝히고 있지만 이는 신빙성이 떨어지는 진술이다.

“일건 당시대를 벗어난 듯한 예술 작품도 기실 그 시대 그 사회생활에서 독립하여 성장할 수 없다”³⁹⁾고 보고 있는 작가 입장에서 봉건적인 세계관 속에 놓여 있는 원본 텍스트를 충실하게 살리는 것은 무리가 있었다. 또한 문학자들의 임무를 문맹퇴치, 민족문화 발굴, 고전의 유산상속, 불건전한 악종류와의 투쟁을 통하여 대중들을 각성시키고 것이라는 김남천의 문학대중화론⁴⁰⁾에 입각해서 개작을 했다면 원본 텍스트의 변형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이춘풍은 어디까지나 허랑방탕하기만한 사람이었고 또 지금 우리가 깨닫기 씻어버려야 할 봉건적(封建的)인 낡은 생각과 풍습에 흠뻑 젖은 사람이었다. 그러한 이춘풍을 통하여 나는 이 이야기 속에서 세력(勢力)을 갖은 몇몇 사람이 백성을 자기 마음대로 다스리는 것이 얼마나 큰 해독인지를 강조하고자 했다.⁴¹⁾

위와 같은 「후기」의 진술을 살펴보면 허랑방탕한 봉건적 인물 ‘이춘풍’을 통하여 지배층에 의한 피지배층의 억압의 해독을 강조하겠다는 개작

39) 김영석, 「문예의 대중화 문제·기타」, 송기환 외, 『해방공간의 비평문학·2』, 앞의 책, 64-65면.

40) 김남천, 「문학의 교육적 임무」(『문화전선』, 1945.11.), 송기환 외, 『해방공간의 비평문학·1』, 앞의 책, 38면.

41) 김영석, 『이춘풍전』 앞의 책, 110-111면.

의도가 드러난다. 원본 텍스트가 봉건 시대 가정 내의 가부장적 문화와 사회의 배금주의를 풍자하는 판소리계 세태소설이었다면⁴²⁾ 이 텍스트는 봉건 사회의 구조적인 모순을 형상화한 소설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조선 문학가동맹의 문학대중화론의 실천이라고 할 수 있다.

앞 절에 살펴본 것과 같이 작가는 해방직후 발표된 문학작품들이 ‘생경하고’, ‘근로 대중들의 요망과 동떨어진 작품들이라고 비판을 하고 대중들에게 재미있는 작품 창작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그런데 높은 문맹율과 문학교양을 쌓을 수 없었던 식민지 환경 때문에 대부분의 독자들은 근대 문학작품을 읽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근대 문학은 지식인 독자 이외의 대중독자들에게 매우 낯선 문학일 수밖에 없었다. 이에 비해 전문 이야기꾼들에게 구송되거나 친인척 어른들에게 들었던 고전소설이나 판소리계 소설들은 누구에게나 낯설지가 않았다. 해방 직후 대중독자들은 근대문학의 컨벤션보다는 봉건문학의 컨벤션 속에서 머물러 있었다. 대중문학 운동을 이끌었던 작가가 『이춘풍전』을 선택한 이유도 여기에 있었다.

5. 춘풍의 변모와 작가의 목소리

원본 텍스트는 못난 가장 춘풍을 개과천선하게 만드는 아내가 주동적인 인물로 그려지고 있다. 춘풍은 주색잡기로 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가산을 모두 탕진하고 경제권을 아내에게 넘기는 몰주체적이며 무의지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조선시대 남성들이 보편적으로 입신양명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었다면 춘풍은 이러한 목표 없이 삶을 타고난 운명에 맡기고 있는 비현실적이고 비합리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인물이었다.⁴³⁾ 이

42) 권오숙, 앞의 책, 7면., 송철호, 「이춘풍전에 있어서 풍자와 해학의 문제」, 『한국문학논총』 제 65집, 2013, 157면.

러한 성격 때문에 텍스트 내적인 갈등구조 또한 선명하지 않다. 때문에 원본 텍스트의 주요 모티프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이 단순하다.

- 1) 주색잡기로 가산을 탕진한 춘풍이 아내에게 가사를 맡기면서 굴욕적인 수기를 써준다.
- 2) 아내가 치산해서 모은 돈과 빚낸 돈을 가지고 장사하러 가서 기생에게 흘러 돈을 다 뜯긴 끝에 사환노릇까지 하는 수모를 당한다.
- 3) 남장비장이 된 아내가 그를 구출할 때 때까지 맞으며 굶신 거리는 등 극도의 비참함을 경험한다.
- 4) 집에 돌아와서 거짓과 뻔뻔함으로 위세를 부리다가 아내에게 망신을 당한다.⁴⁴⁾

원본 텍스트 내에서 춘풍과 직접 대립하는 인물은 기생과 아내이다. 두 사람과의 갈등은 모두 춘풍의 방탕에서 기인하는 것이다. 춘풍과 기생과의 갈등은 돈을 매개로 일어나지만 사회적 빈부갈등이 아니라 해우채 때문에 일어나는 갈등이기 때문에 적대적인 갈등이 아니다. 춘풍이 돈이 새로 생기면 금방 해소될 갈등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기생과의 갈등은 텍스트의 주요 모티프가 아니라 동기 모티프 역할을 하며 부차적인 사건으로 존재한다. 춘풍과 아내의 갈등 또한 적대적이지 않다. 가부장의 외도는 가정 질서를 깨는 행위이자 부부 관계를 위협하는 갈등인데도 불구하고 아내의 봉건적인 성격 때문에 적대적인 갈등으로 심화되지 않는다. 오히려 아내는 춘풍을 도와주어 개과천선하게 만드는 역할까지 한다. 이러한 모호한 갈등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원본 텍스트의 사건 전개는 극적인 상황으로 고양되지 못하고 해학적인 방법을 통한 타협으로 마

43) 이정환, 「이춘풍전 연구」, 성균관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1997, 29면.; 조은희, 「이춘풍전의 여성역의 변모 양상」, 『우리말글』, 우리말글학회, 2002, 228면.

44) 송철호, 앞의 책, 161-162면.

무리된다. 고전소설의 도식적인 해피엔딩 구조를 가지고 있다.

개작 텍스트는 주동인물이 아내에서 춘풍으로 전환된다. 춘풍이 원작 텍스트와는 달리 입체적으로 형상화되고 박덕만과 유선달과 최익수 참판 등 새로운 인물들이 등장하여 사건들이 좀 더 다양하게 전개된다.⁴⁵⁾ 특히 최참판과 같은 악인이 등장하여 신분사회의 모순을 비판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개작 텍스트의 주요 모티프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춘풍은 유곽골 기생 월향에게 빠져 전 재산을 탕진하여 더 이상 향락생활을 못하게 된다.

2) 춘풍은 벼슬을 원하는 상인 박덕만과 최참판 사이를 연결해 주고 구문을 챙겨 다시 기생놀이를 하려고 했지만 최참판의 농간으로 덕만의 원망만 듣는다.

3) 춘풍은 아내 김씨에게 건전한 가정이 되겠다는 수기를 써주지만 마음은 계속 기생 월향이와 놀 궁리를 한다.

4) 춘풍은 친구 유선달 덕분에 최참판 환갑잔치에 쓸 평양방물을 사오는 일이 맡게 되고 호조 돈 이천냥과 아내 김씨가 치산으로 모은 돈 오백냥을 가지고 평양에 가자마자 기생 유추월에 빠져 모두 탕진하고 추월의 하인으로 전락한다.

5) 아내 김씨는 춘풍이 보낸 안세일이란 자를 통하여 사정을 알게 되고 이웃 사는 김 정승의 자제 김인주가 평양 감사로 간다는 소식을 듣고 회계비장으로 따라간다.

6) 아내 김씨는 추월의 집에 행차하여 춘풍의 죄를 물어 곤장 10대를 치고 추월에게 춘풍의 돈이 나랏돈임을 밝히고 이를 편취한 죄를 물어 곤장 20대를 치자 추월은 이천오백냥을 모두 춘풍에게 돌려준다.

45) 원작 텍스트에서 춘풍은 장안 거부의 외아들로 태어나 못 할 일이 없을 정도로 유복하게 자라다가 조실부모하고 “경계할 자 없으며 춘풍은 오입하며 하는 일마다 방탕하고 세전지물 누 만금을 탕진하는” 허탕한 성격으로 제시되고 있는데 이러한 성격은 평양에서의 시련에도 불구하고 일관되게 유지된다. 대단원에서 개과천선했다는 해피엔딩이 나올 때까지 평면적인 성격을 그려지고 있다. 구인환 편, 「이춘풍전」, 『배비장전』, (주) 신원문화사, 2003, 83-84면.

7) 집에 돌아온 춘풍은 월향이와 다시 놀 궁리를 하는 등 하나도 변한 것이 없자 아내 김씨는 다시 회계비장으로 변장하여 춘풍에게 평양에서 일을 상기시키며 혼을 낸다. 이춘풍은 아내 때문에 자신이 살아났다는 것을 알게 되고 반성을 하게 된다.

8) 춘풍은 우연히 덕만의 모친 환갑잔치에 갔다가 월향을 만나 다시 정욕을 느끼지만 유선달이 자기 때문에 의금부에서 곤장을 맞고 죽었다는 덕만의 말을 듣고 충격을 받는다. 춘풍은 허랑방탕한 자기 때문에 유선달이 죽고 아내도 가까운 청춘을 죽였다고 생각하니 쓸쓸해지고 세상이 무섭다고 생각하며 몰래 잔치집을 빠져나온다.

원작 텍스트에 없는 인물들이 등장하는 개작 텍스트는 구성이 복잡해지고 사건이 개연적으로 전개된다. 인물들은 원작 텍스트와는 달리 기생 월향, 박덕만, 호조참판 최익수, 유선달, 기생 유추월, 안세일, 평양감사 김인주 등과 같이 모두 실명으로 등장하여 구체성을 띤다. 이러한 인물들을 통하여 새로운 사건이 첨가되고 원작 텍스트와 비교하여 리얼리스트틱한 서사가 진행된다.

특히 2)와 8)은 원본 텍스트에 없이 새롭게 삽입된 사건들이며 이 텍스트의 주제를 함축하고 있다. 2)는 최참판이 박덕만의 재산을 강탈하고 벼슬 같지도 않은 별감직을 던져 줌으로써 춘풍은 구문을 얻지 못하고 오히려 박덕만의 원망을 듣는 사건인데 작가는 권력의 힘으로 피지배층을 수탈하는 구조적인 모순을 비판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원작 텍스트가 허랑한 춘풍의 기생놀이에서 빠져 스스로 시련을 자초했다가 아내의 지혜로 이를 벗어나는 해학적인 서사라면 개작 텍스트는 탐관 최참판의 비리를 형상화하여 권력과 금력으로 돌아가는 당대 사회 현실을 비판하는 서사로 재창조되고 있다.

8)은 춘풍의 자아 각성을 구체적으로 그리고 있는 사건이다. 아내 덕분으로 추월의 하인생활에서 벗어나 채무관계를 청산하고 다시 예전과

같이 파락호 생활을 시작한 춘풍이 자기 때문에 유선달이 죽었다는 말을 듣고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깨닫고 심경 변화를 일으키면서 비로소 현실을 직시하게 된다. 춘풍의 개과천선이 고전소설처럼 도식적이지 않고 구체적이며 뾰족성이 있다.

이렇듯 개작 텍스트와 원본 텍스트와의 비교에서 가장 주목되는 부분은 주동인물인 춘풍을 입체적으로 형상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원본 텍스트에서는 춘풍이 기생놀이에 혼이 빼앗긴 파락호라는 일면적 성격으로 그려지고 있다면 개작 텍스트에서는 춘풍의 방탕함이 이유가 있고 스스로 반성하는 다면적인 성격을 보인다.

그도 벼슬이 노상 싫지는 않았다. 허나 마음 허량한 그는 침착하게 들어앉아 작시(作詩)를 공부하기보다는 영농한 계집의 권주가를 드르며 술잔을 기우리는 게 몇곱 사는가 싶었다. 더욱이 과거(科擧)라는 게 도시가 조상의 권세(權勢)를 물려받았거나 뇌물(賂物)을 써 벼슬아치를 농간하지 않고, 한 개 평민(平民)의 자손으로 아모 배경도 없이는 겨누어 볼 것이 아니었다. 미리 몇장의 장원을 마련해놓고 그다음은 덮어놓고 시험지에 붉은 작테기를 거어 바라바리 동지전(東紙塵)으로 실어내는 걸 안 춘풍은 아예 과거보기를 단념할 밖에 없었다.

젊어 좋은 시절에는

“내가 과거에 급제만 했다면 영의정(領議政)은 떠어는 당상이지!”

하면서 벼슬도 다 시들히 여기는 말을 했으나, 나이 마흔이 넘고, 지닌 재물마저 탕진해가자 권세(權勢)가 부러웠다. 그러나 그에게는 별감을 지낸 일이 있다는 이외에 아모것도 내세울 것이 없었다. 그레 춘풍은 걸핏하면,

“-호조참판 최익수로 말하면 나와 범연한 새가 아닐세, 최참판은 내 말 팔세안하고 나 역시 최참판을 극진히 대접하는 터일세...” …〈중략〉… 이런식으로 허품을 떨었다. 말하자면 이춘풍은 어느 때나 볼 수 있는 지극히 속인이었다. 그러나 욕심만은 대단해서, 청춘이 사라지면 사라질수록

재물이 피폐하면 할수록 춘풍은 마치 그 마지막판의 향낙을 마음껏 누리 보자는 듯 했다. 없는 재산도 많은 듯이 풍을 치고, 없는 벼슬도 있는 듯이 시우대며 기생집에서 살다싶이 했다.⁴⁶⁾

화자는 텍스트의 서두에 춘풍이 원래 공부하기 싫어하는 성격이었지만 과거시험이 권세와 뇌물로 결정된다는 부조리한 현실을 깨닫고 자포자기한 심정으로 주색잡기에 빠졌다는 정보를 보여주고 있다. 그가 입신양명을 포기한 것은 현실의 비리구조를 알고 나서라는 것이다. 그러나 춘풍은 현실 비판적인 성격이 아니라 젊은 시절 “내가 과거에 급제만 했다면 영의정(領議政)은 띠어는 당상이지!”⁴⁷⁾하면서 벼슬을 하찮게 여기는 호연도 했었지만 나이가 들면서 권세를 부러워하는 현실 안주적인 속물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 이렇듯 춘풍의 방탕한 생활은 개인적인 성향과 사회적인 모순에서 비롯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원본 텍스트에는 없는 악인 최참판을 등장시켜 춘풍의 방탕에는 이유가 있다는 것을 다시 확인시켜 준다.

박덕만은 천량 지닌 것을 미끼로 춘풍과 최참판을 이용하려했고, 춘풍은 박덕만이 벼슬얻기에 몸달아 왔그는 것을 이용하여, 돈냥 후려따리려했고, 최참판 역시 재물을 삼키려는 욕심이 발동했는지라, 세 사람의 야심이 잘 어울린 세움이다. 그러나 천량 썸 지냈기로서니 그것이 그렇게 수이 벼슬과 바꾸어지리라 생각했든 것은 전혀 춘풍의 오산이었다.

백성의 등쳐먹기를 수십년해와 머릿속에 든것이라고는 간계(奸計)와 모략(謀略)밖에 없는 최참판이 한 개 시장아치의 재물썸, 반다시 버젓한 벼슬자리를 미끼로 하지 않드라도 능히 견어드릴 수완이 있었다.⁴⁸⁾

46) 김영석, 『이춘풍전』, 앞의 책, 2-3면.

47) 위의 책, 2면.

48) 위의 책, 16-17면.

위의 인용처럼 전형적인 탐관인 최참관은 구전을 받기 위해 꾸민 춘풍의 계락을 산산이 깨어버린다. 춘풍에게 정보를 들은 최참관은 위력으로 덕만의 돈과 땅문서를 빼앗고 허울 좋은 별감자리를 하나를 던져주었기 때문이다. 수완 좋은 최참관은 춘풍의 중개가 필요 없었다. 결국 춘풍은 구전이 아니라 거액을 빼앗긴 덕만의 원망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권력을 가지고 백성을 등쳐먹는 최참관의 행태를 보면 춘풍이 주색잡기에 몰두하는 것도 나름 이유가 있는 것이다. 작가는 이러한 춘풍의 형상을 통하여 작가는 부조리한 현실을 드러내고 있다.

주류사회의 낙오자이자 속물인 춘풍은 텍스트 속에서 발전적인 성격으로 형상화되고 있다. 여러 사건을 겪으면서 자신의 잘못과 세상의 구조적인 모순을 자각하는 인물형상으로 그려지고 있는 것이다. 춘풍은 아내의 도움으로 추월에게 2천5백냥을 돌려받지만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못하고 추월과 다시 하룻밤을 보내고 2백냥을 놓고 서울로 올라온다. 서울에 올라와서도 춘풍은 월향이와 놀 궁리를 하고 덕만의 모친 회갑잔치에서 우연히 만난 월향에게 정욕을 느끼는 등 파락호 성격을 버리지 못한다. 원작 텍스트에서는 춘풍이 호기롭게 가장 행세를 하려다가 회계비장으로 다시 변장한 아내에게 혼이 나면서 정신을 차리고 있지만 개작 텍스트에서 춘풍은 아내에게 혼이 난 후에도 원래의 성격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텍스트의 대단원에서 춘풍은 자신의 잘못을 스스로 깨닫게 된다.

“참 유선달은 어떻게 지나요?”

춘풍은 박덕만에게 물었다.

“유선달이요! 춘풍어른이 평양서 제달에 안오시니까 보름을 의검부에 갇혔었습니다. 보름동안 하로 중장 이십도식 맞인게 빌미가 되어, 검부에서 나온지 이래만에 죽었습니다.”

“죽었어요?”

“네 죽었어요.”

“죽었어요!”

춘풍은 놀랐다. 죽었던 말이 그것말 같았다. 그는 묵묵히 앉아 있었다. 자기 한 사람 허랑 방탕한 것은 아모래도 좋았다. 자기 때문에 다른 한 사람이 죽어야 한다는 것은 알 수 없는 일이었다. 아니 생각하면 한 사람 뿐만 아니었다. 자기 안해도 자기 때문에 아까운 청춘을 죽였다. 죽은 거나 다름없었다. 월향도 그러고 추월도! …… 춘풍은 쓸쓸했다. 쓸쓸하다니 보다는 세상이 무서웠다. 그래 박덕만도 월향도 보지 않는 틈을 타 슬며시 일어나 밖으로 나와버렸다.⁴⁹⁾

춘풍은 유선달이 자기 때문에 죽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심한 충격을 받는다. 비로소 양심의 가책을 느낀 것이다. 지금까지 춘풍은 향락 이외에는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았지만 유선달의 죽음으로 그의 내부에서 그동안 잠재되어 있었던 인간 본연의 심성이 되살아 난 것이다. 그리고 자기 때문에 희생당한 사람이 유선달만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다. 자신의 방탕함 때문에 아내도, 월향이도, 자신을 타박했던 추월마저도 희생을 당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다. 자신의 잘못을 깨달은 춘풍은 ‘쓸쓸하다’고 느낀다. 여기에서 ‘쓸쓸하다’는 자신의 지은 잘못을 자각하고 난 후의 외로움이면서 동시에 유선달을 죽이는 세상이 삭막하다는 의미가 중첩되어 있다. 때문에 곧바로 무서움을 느끼게 된다. 쓸쓸함과 무서움은 최참판의 악행이 당연시되고 유선달이 억울하게 죽임을 당하는 세상이 얼마나 부조리한 가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이다.

내외가 서로 웃고 전후사를 서로 다 이르며 인하여 호조돈을 다 수보하고, 춘풍이 개과하여 주색잡기 전폐하고 치가를 일삼아 형제도 요부하

49) 위의 책, 108-109면.

고 유자생녀하여, 감사가 과만하여 올라온 후, 안팎 없이 다니며 평생 신을 끊지 않고 대대손손이 섬기더라.⁵⁰⁾

위의 인용처럼 원본 텍스트의 대단원이 춘풍의 개과천선과 도식적인 해피엔딩으로 끝나고 있다면 개작 텍스트의 대단원은 춘풍의 자각과 현실비판으로 마무리된다. 춘풍이 덕만과 월향이 몰래 잔치집을 빠져나오는 장면을 통하여 막연하지만 소설적인 전망을 읽을 수 있다.

개작이란 원본 소설의 자장 안에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하지만 개작이 복제나 표절이 아니기 때문에 개작하는 작가의 의도에 의해서 재창작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개작 『이춘풍전』은 주동인물이 아내에서 춘풍으로 전환되고 입체적인 인물로 재탄생한 춘풍의 자각 과정을 통하여 작가는 자신의 목소리를 강하게 드러내고 있다.

6. 결어

지금까지 살펴 본 김영석의 개작소설 『이춘풍전』은 해방기 문학내외적인 상황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는 텍스트다. 친일 이미지를 불식시키고자 하는 조선 금융조합연합회와 대중계몽과 선전을 위한 문학가동맹의 목적이 중첩된 협동문고에서 발간되었다는 점과 작가의 대중 문학운동의 일환으로 개작되었다는 점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개작소설이란 역사와 역사소설 관계처럼 원본 텍스트를 완전히 벗어날 수가 없다. 김영석의 『이춘풍전』 또한 원본 텍스트에서 크게 이탈을 하지 않았다.

하지만 개작 텍스트는 관소리계 소설이었던 원문 텍스트의 운문체에서

50) 구인환, 앞의 책, 115면.

벗어나 산문체로 기술하여 현대소설적인 형식을 갖추었고 있다. 그리고 주동인물이 아내에서 춘풍으로 전환되고 춘풍의 성격이 입체적으로 형상화되고 또 다른 등장인물을 창조하여 원본 텍스트에서 도식적이거나 비약적인 사건들을 개연성 있게 재구성하고 있다. 즉 작가는 추가된 새로운 사건들을 통하여 의도했던 주제를 형상화하고 있다. 특히 악인 최참관을 등장시켜 부조리한 사회를 비판하고 있다.

원본 텍스트가 판소리계통의 소설로서 풍자와 해학으로 가부장제 비판이라는 주제를 드러냈다면 이 텍스트는 춘풍의 각성 과정을 통해 신분제도의 폐해와 사회적 모순을 비판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이렇듯 이 텍스트는 양가적인 주제를 가지고 있는데 문학 대중화를 위한 목적과 함께 소설적 형상화에도 어느 정도 성공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 텍스트는 작가가 활자화된 최초의 『이춘풍전』⁵¹⁾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춘풍전』의 새로운 이본이 아니라 김영석의 『이춘풍전』이라고 할 수 있다.

개작소설 『이춘풍전』은 김영석 문학연구에서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논의되고 있지 않다. 개작소설이라는 양식 때문이지만 원본 텍스트와 다른 주제의식을 가지고 있고 그의 해방기 문학 활동과 관련이 깊은 텍스트다. 그러므로 그의 문학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자료라고 할 수 있다. 또한 해방기 협동문고로 출간된 텍스트들이 가지고 있는 컨텍스트성은 자세히 고찰할 필요가 있다. 개작소설 『이춘풍전』이 가지고 있는 함의를 고려한다면 이들 텍스트 또한 해방기 문학사를 읽기 위한 중요한 문학사료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51) 김영석, 『이춘풍전』, 앞의 책, 110면.

| 참고문헌 |

1. 단행본

- 구인환, 「이춘풍전」, 『배비장전』, (주)신원문화사, 2003
김영석, 『이춘풍전』 협동문고 4-2, 조선금융조합연합회, 1947
송기환 외, 『해방공간의 비평문학·1』, 태학사, 1991
송기환 외 『해방공간의 비평문학·2』, 태학사, 1991
조상우, 『고전산문의 발견과 활용』, 보고서, 2007
조선문학가동맹 서기국 편, 『건설기의 조선문학』, 백양당, 1946

2. 논문

- 강진호, 「개작과 작가의 정체성-해방 후 이태준과 김동리 소설의 개작」, 『인문과학연구』 제 42집, 성신여자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20, 319-343면.
권오숙, 「베니스상인과 이춘풍전의 비교문학적 연구」, *Shakespeare Review* 50(1), 2014, 5-31면.
김남천, 「문학의 교육적 임무」, 『문화전선』, 1945.11.
김영석, 「문학자의 새로운 임무-문화공작자로서의 문학자」, 『백제』, 1947.2.
김인식, 「〈8월 테제〉의 진보적 민주주의 국가건설론」, 『민족운동사연구』 55, 2008, 361-403면.
김정화 「북한에서 발표된 김영석 소설 고찰-〈보배손〉을 중심으로」, 『국제어문』 제57집, 2013, 307-331면.
민현기, 「연암·춘원·채만식의 〈허생전〉 대비 연구」, 『관악어문연구』, 8권, 1983, 191-211면.
박민규, 「조선문학가동맹 ‘시부(詩部)’의 시 대중화 운동과 시론」, 『한국시학연구』 제 33호, 2012, 183-217면.
서보영, 「고전소설 다시쓰기의 전통과 국어교육적 의미-〈춘향전〉을 중심으로」, 『국어교육』 제44집, 2019, 121-151면.
송철호, 「이춘풍전에 있어서 풍자와 해학의 문제」, 『한국문학논총』 제65집, 2013, 153-175
신형기, 「해방직후 문학 논의의 쟁점」, 『해방 전후사의 인식·6』, 한길사, 1989
여상임, 「해방기 좌익 측 문학의 연표적 행위와 인민의 형성」, 『한민족어문학』 제90집, 2020, 397-434면.
유덕제, 「해방직후 문학론에서의 대중화 문제」, 『Culture and Convergence 문화와 언

- 어』 14집, 한국문화융합학회, 1993, 257-283면.
- 윤희영, 「김영석 문학연구」, 인하대 석사논문, 1998
- 이경재, 「김영석 소설연구-생산문제를 중심으로」, 『현대소설연구』(45), 한국현대소설학회, 2010, 299-326면.
- 이승수·민선홍·우미영, 「최인훈 〈구운몽〉의 제목과 형식」, 『한국언어문화』 75집, 2021, 119-150면.
- 이정환, 「이춘풍전 연구」, 성균관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1997
- 이화진, 「채만식 풍자소설의 성격 재론」, 『국제어문』 30집, 2004, 247-274면.
- 임화, 「현하의 정세와 문화운동의 당면업무」, 『문화전선』 창간호, 1945.11.
- 임화, 「조선 민족문학건설의 기본과제에 대한 일반보고」, 『건설기 조선문학』, 백양당, 1946
- 장덕순, 「이춘풍전 연구」, 『국어국문학』 5집, 국어국문학회, 1953.6., 1-5면.
- 조선공산당 중앙위원회, 「조선민족문화건설의 노선(잠정안)」, 『신문학』 창간호, 1946.4.
- 조은희, 「이춘풍전의 여성의식 변모 양상」, 『우리말글』, 우리말글학회, 2002, 223-240면.
- 청량산인, 「민족학론-인민민주의 민족건설을 위하여」, 『문학』 7호, 1948.4.
- 최재성, 「해방~ 625전쟁 직전 시기 금융조합의 조직 재건과 그 중심인물」, 『한국근현대사연구』43, 한국근현대사학회, 2007, 165-198면.
- 최혜진, 「〈이춘풍전〉에 나타난 부부 갈등의 해결 방식과 문학치료적 효용」, 『한국언어문학』 제63집, 한국언어문학회, 2007, 257-278면.

3. 기타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548681&cid=46623&categoryId=46623>, 한국민족대백과(2021년 9월 25일 검색)

<Abstract>

The study on the “Lee-Chun-Pung-Jeon” written by Young-Seok Kim

Chang, Dusik

This paper examines the semantic network in the history of literature of Young-Seok Kim's “Lee-Chun-Pung-Jeon,” which was adapted into a modern novel from the classic novel “Lee-Chun-Pung-Jeon” shortly after liberation. Unfortunately, this text has not received much attention in literary history and has not been discussed even in Young-Seok Kim's literature research.

However, the “Lee-Chun-Pung-Jeon” as are written novel is closely related to the background of times on independence and the literary activities of Young-Seok Kim before the defection to North Korea, that is to say, motive and purpose of the literary movement at that time. In addition, this novel text achieved new creation, not a simple adaptation of the original novel. The main character, “Lee-Chun-Pung,” is embodied in a modern personality, and the text theme developed ambivalently.

The “Lee-Chun-Pung-Jeon” reflected the social situation during the liberation era and the author's intention of working in the Korean Writer's Alliance. It has also deviated from the schematic structure of classical stories. The author recreated the round main characters and pessimistic personalities. Furthermore, while the original text expressed satire and humor as a central theme of Pansori, this adaptation text reveals it through the awakening process of the maincharacter, Lee, Chun-Pung. Therefore,

this text has succeeded in the novelization and popularizing of literature.

Key words: adaptation, Lee-Chun-Pung-Jeon, Young-Seok Kim, classic novel, the liberation era, popular literature movement

투 고 일: 2021년 11월 15일

심 사 일: 2021년 12월 14일

게재확정일: 2021년 12월 14일

수정마감일: 2021년 12월 23일